No.1890

하늘마음

레안드로 바사노의 부자와 라자로

[부자와 라자로, 레안드로 바사노, 1595년, 캔버스에 유채, 개인소장]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루카 13,30)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입으로 말하면서 신실한 믿음과 사랑에 찬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주님의 사랑과 자비에 의탁할 줄 알며, 가난하고 고통받는 어려운 이를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돌볼 때 가능합니다.

[2013년 9월 29일 연중 제26주일 서울주보 1면, 지영현 시몬 신부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2019년 8월 25일 연중 제21주일 (녹)

제1독서 이사 66,18-21

화 답 송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모든 겨레들아. ◎
○ 우리 위한 주님 사랑 굳건하여라.
주님의 진실하심 영원하여라. ◎

제2독서 히브 12,5-7.11-13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 알렐루야.

복 음 루카 13,22-30

영성체송

주님,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당신은 땅에서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 흥겹게 하는 술을 주시나이다.

발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중고등부 (www.foryouth.or.kr)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56 가톨릭 청소년 회관 106호
발행인 | 박범석 필립보 신부님 구독신청 | 가톨릭 출판사 (대표전화 _ 1544 - 1886)
미디어부 | 이종민 대건안드레아, 김병수 베드로, 정연욱 소화데레사, 오세용 세례자요한, 강미림 엘리사벳, 문혜지 아셀라, 양유정 미카엘라

열두 제자, 토마스

오세용 세례자요한 (미디어부)
hama0986@naver.com

CYA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름 캠프는 안전하고 재미있게 다녀왔나요? 이번 시간에는 토마스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은 토마스 사도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못 자국에 직접 손을 넣어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모습이 떠오르진 않나요?

충실함과 솔직함

요한복음에는 세 대목에서 토마스 사도가 '쌍둥이'로 불려요. '토마스'(Thomas)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로 쌍둥이 뜻을 지닌 '토암'의 단축 형태이며 그리스어로는 '디디무스'라는 말로도 사용된다고 해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토마스의 주목할 만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유다로 돌아가려 할 때 다른 제자들처럼 물러서거나 망설임 없이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요한 11,16)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 토마스가 사도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각오까지 보인 열정적인 제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최후의 만찬에서는 솔직히 고백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요한 14,4)라고 하자 토마스 사도는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요한 14,5)라고 답해요. 다른 사도들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백해요. 두 장면을 보면 토마스는 굳은 신앙과 용기를 지닌, 예수님께 충실하면서도 솔직한 제자임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을 얻은 제자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평화를 빌으시고,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보내 주세요.(요한 20,21-22) 그리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토마스 사도를 만났을 때 "우리는 주님을 뵈었소."(요한 20,25) 라고 증언합니다.

제자들의 증언에도 토마스는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요한 20,25) 라고 말했어요.

여드레 뒤에 토마스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의심을 거두고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요한 20,28)이라고 고백해요. 이를 통해 토마스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느끼고 예수님을 곧 하느님이라고 고백한 최초의 사도가 되었어요.

복음 선포와 순교

토마스(Thomas)

축일 : 7월 3일
출신 : 갈릴래아
신분 : 사도, 순교자
상징 : 직각자, 창, 허리띠
수호 : 건축가, 예술가, 목수, 측량사, 재판관, 건축업자, 조각가
특징 : 의심이 많음. 매우 강직함. 성격이 급함

전승에 따르면,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하러 사방으로 흩어졌을 때 토마스는 인도를 배당받았다고 해요. 처음에는 너무 먼 곳이어서 거부했으나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개입해 목수로 인도에 가게 했다고 전해져요. 이런 점이 토마스 사도가 건축가와 목수의 수호성인으로 공경받는 배경이라 할 수 있어요.

인도에서 군다파르 왕실의 궁전 짓는 일을 한 토마스 사도는 그곳에서 왕궁 건축 기금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 다 써버렸고, 군다파르 왕의 노여움을 사서 투옥되었어요. 그러나 토마스는 기적적으로 탈출했고 왕도 개종시켰다고 전해져요. 토마스는 군다파르 왕에게서 탈출한 후 말라바르 지방으로 내려와서 7개의 교회를 세웠으며, 기원후 72년 7월 3일 마드라스시(현재 첸나이) 북쪽에 있는 밀라포레 근처에서 힌두교 사제들에 의해 창에 찔려 순교했다고 해요. 성 바오로 6세 교황은 1972년 토마스 사도의 순교 1900주년을 맞아 사도를 인도교회 수호자로 선포했어요.

토마스는 부족한 믿음과 의심, 불신으로 대표되는 제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참모습을 알아보았고, 이를 고백할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신앙 활동을 하면서 믿음에 확신이 생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고문헌 : 2018년 4월 22일 부활 제4주일(성소주일) 서울주보 5면 송현철 안토니오 글
2018년 10월호 경향잡지 최광희 마태오 신부님 글
2017년 7월 2일 연중 제20주일 인천주보 3면
2008년 7월 13일 발행 [982호] 가톨릭평화신문 이창훈 기자 글
2019년 6월 30일 발행 [제3151호, 3면] 가톨릭신문 이주연 기자 글

날으는 CYA

Vol.926 | 염현아 안젤라 | zzz-h@hanmail.net

누구세요?
병든 죄인과 가난한 이방인 …
우린 하느님 나라에 갈수 없겠죠?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율법학자가 그랬어. 선택받은 유다인들만 가는 곳이라고… 우린 죄인이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바꿔 주셨어요.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새계명
하느님 나라에 오너라.
정말요?! 저희도 갈 수 있다구요? 희망이 생겼어요!
구원받을수 있다! 열심히 살게요!!
엄청 기뻐하시네.
두개의 문이 있다.
불의한 자들이 좋아하는 문과
쿵쾅
쿵쾅
선한 이들이 찾는 문.
너희는 좁은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루13.24)

친구들이 자꾸 놀려서 괴로워요!

이혜수
(사단법인 감정코칭협회 부회장,
국제공인가트맨 관계치료사)
toheysoo@naver.com

Q: 저는 중학교 2학년 재욱(가명)이에요. 저의 고민은 친구들이 저를 자주 놀린다는 거예요. 놀림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제가 키도 작고 다리가 짧으니 웰시 코기를 닮았다네요. 줄여서 '코기'라고 불렸어요. 처음에는 한 두 명이 놀리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점점 늘어서 나중에는 반 아이들 모두가 저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코기'로 부르게 되었어요. 전 그 별명을 들을 때마다 너무 창피하고 화가 나서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말해보았지만 소용없었어요. '장난인데 쪼잔하게 왜 그러냐?' 고 하면서 오히려 저를 더 이상한 사람 취급 했어요. 전 그냥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빨리 2학년이 되서 다른 반이 되면 괜찮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지냈는데 2학년이 되어서도 그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죠. 전 이제 그 별명을 부르는 아이들을 보면 참을 수 없이 화가 나요. 저를 무시하는 그 아이들을 죽여 버리고 싶어요. 언젠가 그 아이들을 해치게 될 것 같아 저도 제가 무서워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재욱군, 그동안 정말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선생님에게 고민을 이야기해주어 고마워요. 다른 친구들 앞에서 신체적 단점으로 놀림 받는다는 건 수치심을 느낄만한 일이지요. 발달심리학자인 데이비드 엘킨트(David Elkind)는 청소년기의 특징 중 하나로 "상상적 청중" 이란 개념을 소개했어요. 사춘기 청소년들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한다고 느끼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청소년기에는 그만큼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는 예민한 시기라는 뜻이죠. 외모에도 부쩍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고요. 그런 때에 외모로 놀림을 받아왔으니 재욱군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놀리지 마!' 라고 의사표현을 분명히 했음에도 이 상황이 반복되다보니 수치심과 분노, 복수심 같은 감정들이 오랫동안 누적되었을 겁니다.

이제는 별명을 부르는 상대를 죽이고 싶은 충동이 들 만큼 그 감정들이 아주 커진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화가 나고 복수심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감정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 행동을 하기 전에 선생님한테 고민을 이야기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선생님이 자주 하는 이야기이기도하지만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은 재욱군이 뭔가 잘못하거나 부족한 사람이라서 생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재욱군이 먼저 알기 바라요. 그래서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지혜롭게 대처해나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선 우리 모두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재욱군이 싫다는 의사표현을 했는데도 놀림이 계속 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학교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학교 폭력 예방 법률에서는 '언어폭력'도 폭력에 해당되며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도 학교 폭력으로 규명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장난으로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런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 스스로가 이런 상태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청하기를 권장합니다. 우선 부모님께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지요. 이야기할 때는 남들에게는 그저 그런 장난이 아니라 재욱군에게는 살인 충동을 느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지하게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님께서도 빨리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재욱군을 돕기 위해 나서시겠지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께도 말씀드린다면 조금 더 빨리 해결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담임선생님께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면 학교 상담 선생님을 통해 이야기를 해도 좋겠습니다. 꼭 거창하게 학교 폭력 위원회를 여는 것이 아니더라도 선생님이나 친구들 부모님과의 간단한 상담을 통해 친구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때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는데 지금이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재욱군과 함께 하시면서 힘과 용기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선생님도 재욱군의 평화로운 학교 생활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황청 승인 국제순례지 **'천주교 서울 순례길'** 선포 1주년 기념

2019 청소년·청년 순례길 걷기 이벤트

9월은 모진 박해 속에서 '피'로써 신앙을 증거한 순교자들의 정신을 기리고 본받는 한국 천주교회의 고유한 '순교자 성월'입니다. 특히 오는 '9월 순교자성월'은 '천주교 서울 순례길'이 교황청 승인 국제순례지 선포 1주년을 맞이하는 달입니다.

지난 2013년 천주교 서울대교구(교구장 염수정 추기경)는 말씀의 길, 일치의 길, 생명의 길 3개 코스로 이루어진 '서울대교구 성지순례길'을 선포하였습니다. 이후 신자들의 꾸준한 관심과 지속적인 순례를 바탕으로 2018년 9월 14일, 아시아 최초! 교황청이 공식 승인한 국제 순례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신앙선조들의 굳건한 믿음과 정신이 서려있는 성지와 순례지를 찾아 그들의 정신을 본받고, 우리 신앙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9월 순교자성월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래와 같은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2019 청소년·청년 순례길 걷기 이벤트 안내

참여기간 | 9/1(일) ~ 9/28(토)

참여대상 | 청소년·청년

장　　소 | '천주교 서울 순례길' 3개 코스 및 박물관 3곳 (명동, 서소문, 절두산)

'서울 순례길' 모바일 어플을 활용해 쉽고 재밌게 순례길을 걸으며, 푸짐한 선물이 있는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그리고 박물관 3곳만 방문해도 참여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이벤트도 놓치지 마세요! 아래 QR코드를 찍으면 더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서울 순례길 어플 다운 ▶ 구글 플레이 스토어 / 애플 앱스토어

이벤트 안내 로캣 보기 ▶ 이벤트 안내 로캣

순교자들의 피와 땀이 배어 있는 이곳, 서울의 순례길은 우리만의 유산이 아닙니다. '천주교 서울 순례길'은 천주교신자들 만의 순례길이 아니라 대한민국, 나아가서 아시아와 세계인 모두의 순례길이 될 것입니다. 한국 천주교회의 미래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